

# COVID-19 영향으로 인한 한국 이공계 대학생의 영어 온라인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차현지\* · 김성희\*\*

(인천대학교 · 우송대학교)

Cha, Hyun Ji & Kim, Sunghee. (2021).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of an online English class during COVID-19.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1), 49-69. This study investigated how Korea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perceived their general English course held online for one semeste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urvey in which 166 students participated was conducted at the end of the first semester of 20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preferred pre-recorded online lectures delivered by their professors. The most common reason given was the flexibility of being able to watch them repeatedly without any concerns about time and place. Second, the preferred evaluation method was to submit only assignments without testing, since students believed this could prevent cheating. Third, the drawbacks of online classes were identified as difficulties in acquiring learning strategies from professors, problems with fair evaluation, overloading assignments, and difficulties in self-motivation due to the absence of peers. Fourth, while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had negative opinions about online classes, there were a few positive answers. Thus,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participants had different preferences for and abilities to adapt to online classes. Therefore, students should reflect on their needs for online classes in the future. Discussing customized online classes tailored to each individual who takes part may be one requirement.

**주제어(Key Words):** 온라인 영어 수업(online English class), 온라인 수업 유형(types of online class), 온라인 평가 방법(online evaluating method), 인식(perceptions), COVID-19

---

\* 제 1저자

\*\* 교신저자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미국의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원격수업 또는 온라인 수업의 수요가 31.6% 이상을 차지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학부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이 한 과목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Richardson, Hollis, Pritchard와 Lingat, 2020; Allen과 Seaman, 2018). 또한 온라인과 블렌디드 수업이 유행하면서 63.3%의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온라인과 블렌디드 교육을 장기적인 교육전략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Allen과 Seaman, 2018; Chen, Lambert와 Guidry, 2010). 이러한 추세는 온라인 교육이 향후 고등교육 기관에서 뉴노멀로 자리를 잡고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웹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예컨대 김정렬(2000)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웹기반 학습은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 태도에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교육 도구임을 강조하였다.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연 스티브 잡스는 “모든 책, 학습 자료, 평가는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각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카우치와 타운, 2019). 잡스의 이 발언은 현재 교수자들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계에서도 전무후무한 한 해가 되었다. 거의 모든 대학이 사이버대학처럼 온라인 강좌를 전 학기에 걸쳐 일률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새로운 수업 방식에 미처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자는 디지털 노마드, 즉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터넷에 노출되고 IT 기기 활용에 능숙한 세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과는 전혀 다른 수업 방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 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여전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우리는 온라인 홈스쿨링, 온라인 학습, 줌 실시간 수업, 수많은 강의 자료 제작용 IT 도구들, 구글 클래스룸 등등 2020년 이전과는 크게 변화한 학교 환경에 적응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 민혜리, 서윤경, 윤희정, 이상훈, 김경이(2020)은 COVID-19가 열어젖힌 미래 교육의 판도라 상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실감하지 못했던 교수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하면서 이미 다가온 미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COVID-19로 인한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의 시행은 대학의 수업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양영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한국 이공계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온라인 수업의 여러 장·단점을 조사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전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수업에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대학생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선호하는 영어수업방식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한국 대학생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 평가방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비대면 온라인 영어수업의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가?
4. 한국 대학생 학습자가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2. 선행연구

강의 위주의 지식 전달이 주된 목적이었던 초기 e-러닝 학습은 교수자-학습자간의 소통 및 상호작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전통적인 면대면 학습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이현주, 2012). 하지만 협동 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 및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및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e-러닝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COVID-19으로 인해 일반적인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온라인 학습 주체와 온라인 교육 환경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업을 듣는 주체인 학습자와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는 개인용 컴퓨터, 전자게임, 태블릿, 휴대전화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한 첫 세대를 일컫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Prensky, 2001)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본인들이 조작하는 많은 기술적인 도구를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라고 여긴다(카우치와 타운, 2020). Prensky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가 시대에 뒤쳐진 디지털 이전의 언어로 거의 완전한 디지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정의했다(박종필, 윤현철, 신민철, 김재현, 박정철, 2019).

디지털 디바이스를 대학교 영어 수업에 활용한 연구 중, 하명정(2017)은 대학 영어 수업에서 스마트폰 SNS(Social Network System)앱을 활용한 모바일 수업(네이버 밴드)을 이용하여 영어 프리젠테이션 기술이 향상이 되었으며 협동학습의 기회도 증진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하명정 최근 연구(2020)에서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학습자 중심의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증진 되었다고 했으나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평가방식이나 심도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최미양, 2019)에서 대학 영어 수업에서 스마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교수-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학습 내용 간 모든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이 영어 학습력 및 영어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정동빈과 강시경(2008)은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영어 교수-학습이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으며, 웹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학습이므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영어 교수-학습이 단기적인 웹기반 학습으로 영어 쓰기 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의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보여주는 한지희와 임희정(2011)은 디지털 영어교재 기반 블렌디드 러닝의 읽기 성취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으며, 디지털 영어교재 기반의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일반적인 수업을 실시한 집단에 비해 읽기 성취도가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교사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영어교재 기반의 블렌디드 러닝을 실시한 집단이 일반적인 수업을 실시한 집단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과업부담을 줄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된 블렌디드 연구들은 모두 COVID-19 팬데믹 상황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영어 수업에서 LMS의 상호작용 효과와 웹기반 학습에서의 영어 쓰기 능력, 디지털 영어교재 읽기 성취도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 수업과 영어 학습을 결합한 온라인 영어교육의 제시했으며, 이러한 학습들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 상황 즉, 거의 모든 과목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수 상황 속에서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도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 2.2. 비대면 온라인 수업 · 강의 유형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초,중,고 개학을 연기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었다. 오재호(2020)는 우리나라

라의 IT기술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하데 반해 공교육과 대학교육은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며 COVID-19으로 비대면 수업을 불가피하게 진행하면서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나, COVID-19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한 혁신의 기회를 맞이했고, 교육 분야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 기술을 일컫는 에듀테크(Edutech, education+technoogy)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으며, 학습자의 성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 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과 과제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오재호, 2020). 다음은 한국 교육 신문(2020)에서 구분한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네 가지 유형을 보여준다(그림 1). 유형별로 본다면 크게 실시간유형과 비실시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시간은 ZOOM을 이용한 수업이 대표적이며, 나머지 세 가지 수업형태는 비실시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실시간 화상강의	강의 동영상 사전 녹화	강의 녹음+교안	기존 매체 활용
특징	교수와 학생이 시간을 정해 놓고 만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	강의실 혹은 스튜디오에서 캠코더 장비를 이용해 영상자료 제작 후 게시	교안에 교수자 음성을 덧붙여 파일을 생성한 후 게시	수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른 기존 동영상을 선별하여 제공
자료 화면				

자료 : <https://zoom.us>, 한국교육신문(2020.3.4.) <https://www.youtube.com>.

그림 1. 대학 비대면 온라인 수업 유형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선애, 김옥분, 박지인, 김은진, 정태욱(2020)는 비실시간 강의방식은 수업 목적 및 학습활동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습자들의 수업 내용의 사전 지식수준이 높을 때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비실시간 강의를 선호했으며, 수업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낮은 경우 실시간 강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종연, 2004). 신선애 외(2020)는 수업 내용이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 비해 높은 난이도의 내용이라면 비실시간 강의보다는 실시간 강의를 효과적이라고 했다. 교수자는 수시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질문을 받음으로써 학습자의 교수학습 실재감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이해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자발성과 학습 내용에 따른 강의유형을 언급한 한승우와 김보영(2020)은 COVID-19 이후 대학 온라인 교육에 관한 학습자의 반응 연구를 했다. 비자발적인 온라인 수업과 자발적인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발적인 온라인 수업을

더 선호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유형별 즉 동영상과 줌(Zoom)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비자발적 온라인 수업은 2020년 1학기 상황과 같이 학생들이 수업 유형별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수업이었으며, 자발적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의 유형을 선택하게 한 경우이다. 자기주도 학습, 학습 몰입도, 만족도, 학습 지속의향의 총 4가지 변수 모두 자발적 온라인 수업이 비자발적 온라인 수업보다 교육효과 면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미 완성된 형식인 사전 제작 동영상 수업이 실시간 화상강의보다 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교과목이나 외국인 수업의 경우에는 ZOOM 보다는 완성된 동영상 수업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토의와 토론이 동반되는 수업의 경우는 ZOOM의 수업 유형을 선호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는 온라인 수업은 더욱 부각되면서 오히려 대면수업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승우와 김보영(2020)은 COVID-19 이전에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온라인 수업이 팬데믹 이후에는 일반적인 강의의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처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유형 선호도 및 자발성과 강의 유형에 대한 연구(한승우와 김보영, 2020)는 일반교양과목의 온라인 과목 개설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전체 온라인 수업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견으로 그칠 수 있다. 신선에 외(2020)의 연구의 경우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데이터를 의미 연결망을 활용하여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했으나,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의견에 대한 수집이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는 교양영어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학습자들의 대한 인식을 객관식과 개방형 질문을 섞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완점과 향후 발전된 수업형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3. COVID-19 전 · 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COVID-19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은 대학교육에서 첨단 IT기기와 결합하여 교과 내용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현주(2012)는 블렌디드 러닝이 외국어 교육에 활용되어 영어학습의 동기 부여를 증진하며, 학습의 다양성을 최대화 한다고 했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생들의 학업을 창의적인 접근하게 해주며, 자기평가도 가능하게 했으며, 학습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블렌디드 러닝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습의 한계를 뛰어 넘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비교적 적게 받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교육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며, 학생 주도적 학습을 이끄는 교육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학습자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정성희, 2020)는 전공영어 과목을 듣는 대학생 학습자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참여 후, 학습자가 선호하는 수업 유형과장·단점



에 대한 연구였다. 학습자들은 반복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으며, 최선을 다해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소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을 이상적인 강의 유형으로 선택했다. 이처럼 COVID-19 팬데믹 상황 이전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대면수업을 표준 수업으로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블렌디드 수업에서 IT 기기가 영어 수업에 결합되었을 때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을 수강한 학습자들의 정의적인 태도에 대해 연구한 박은경(2020)은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행된 2020년도 1 학기 교양 영어 수업에서 수강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영어 강의 방식(61.9%)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시간 화상강의에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평가는 비대면 온라인방식(73.5%)으로 원했으며, 실시간 화상시험에 대하여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을 참석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이보경(2020)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말 설문과 과제 답변을 바탕으로 반응연구를 실시했고, 학생들은 영상의 소리크기와 과제제출과 관련된 부담감 및 불안감, 빠른 강의 진행 속도, 소통의 부재 등 여러 문제를 제기 하고 있었다. 긍정적인 부분은 강의 반복재생학습을 통한 효율적 강의 활용과 자료의 효율적 제시를 통한 학습효과의 증대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갑자기 맞이하게 된 COVID-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온라인 영어 수업과 다른 전공의 과목에서도 온라인 교육에서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불편함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온라인 수업에서 디지털기기의 사용 능력을 잘 익혀 효과적인 교육의 도구로써 순조롭게 사용하며, 수업내용의 내실과 더불어 학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온라인 수업이 계속 강조 될 것으로 보인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천의 한 국립대학교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이루어졌다. 기말시험 이후 학술영어(교양필수과목)을 온라인으로 한 학기 수강한 후에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두 명은 다수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측으로 처리하였고 최종 응답자는 총 166명이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여학생이 55명이며 남학생은 11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6명 더 많았다(표 1). 원래 신입생을 위한 과목이었으므로 1학년 참여자가 156명으로 9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2,3학년 학생으로 이루어졌다. 연령대는 18살에서 20살 사이 참여자들이 122명을 가장 많았고, 21살에서 25살 사이 참여자도 41명으로 24.7%이었으며 나머지 20대 후반이 2명, 30대 학생은 단 1명 이었다. 응답자들은 학술영어(Academic English)수업을 수강하는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분자의생

명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부, 생명공학, 나노바이오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다. 이 과목은 이공계 신입생들을 위한 특수목적 교양영어수업으로 . 설문 응답에 참여한 학생들의 나이와 학년, 전공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동질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분포 (n = 166)

	분류	인원	퍼센트
성별	남	111	66.9
	여	55	33.1
학년	1	156	94
	2	2	1.2
	3	8	4.8
	4	0	0
연령대	18-20	122	73.5
	21-25	41	24.7
	26-30	2	1.2
	31-40	1	0.6
합계		166	100

### 3.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는 모두 20개의 설문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다형과 개방형질문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2020년 1학기에 인천의 한 종합국립대학에서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술영어(교양영어수업 명칭) 프로그램이 종강하는 시점인 2020년 7월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앞부분 네 문항은 학생들의 기본정보에 대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온라인수업에 대한 의견과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코딩한 후 SPSS(version 25.0)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가 학생들 응답을 모두 읽고 비슷한 대답별로 분류하였다.

## 4. 연구 논의

### 4.1. 학습자의 온라인 교양영어수업에 대한 인식: 온라인 수업 유형 및 온라인 수업 평가 방법 선호도

COVID-확산으로 인해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온라인 교양수업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선다형과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처음 문항은 선호하는 온라인 영어수업 방식을 묻는 것이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138명(83.1%)의 응답자들은 담당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강의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실시간 화상강의라고 답한 학생은 15명(9.0%)으로 비교적 소수의 참여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명(7.2%)학생들이 이미 제작된 유명강사나 교수의 강의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대부분 담당과목 교수가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가장 선호했다. 이는 대면 수업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바뀌면서 참여자들이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원래 수강하려던 수업은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아니었으므로 이미 제작된 강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으며, 일반적으로 타 대학교에서는 많이 실시되었던 Zoom과 같은 실시간 강의는 의외로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생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영어수업 방식

선호하는 영어온라인 수업 방식	인원	퍼센트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 강의	138	83.1
실시간 화상 강의	15	9.0
이미 제작된 유명한 강사나 교수의 강의	12	7.2
합계	166	100.0

그 다음으로 응답자들에게 선호하는 영어 온라인 수업을 고른 이유를 물었고 그 답은 아래 표 3과 같이 분류되었다. 교수자가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고른 학생들의 선택 이유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인 66명(39.8%)의 응답자들은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어 복습이 용이함”이라고 했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어서”라고 답한 참여자들은 42명(25.3%)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필기가 용이해서라고 답하거나 교수님을 뵈 수 있어서, 또는 “다른 온라인 형태보다 효과적이어서”라고 답한 학생은 24명으로 비교적 소수에 그쳤다.

실시간 화상강의를 선호하는 학생은 15명(9%)중 오직 1명의 학생만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서”라고 응답을 했으며 나머지 14명(8.4%)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이미 제작된 강의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중 1명만이 “내용, 화질, 음질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서”라고 응답 했으며 나머지 11명의 학생들은 답하지 않았다. 이로써 응답자들은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 작용의 장점이 있는 실시간 화상강의나, 음질, 화질 내용이 보증된 기존의 제작된 강의는 선호하지 않았다.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138명이었으나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도 16명(9.6%)이 있어서 총 응답자는 122명이며 실시간 화상강의를 선호하는 학생들

과 기존의 제작된 강의를 선호한다고 대답한다고 학생들은 각각 1명이었다. 이렇게 138명의 응답자들이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선호한다고 했으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이미 경험한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온라인 수업에 상대적으로 큰 선호도를 나타냈다.

표 3. 선호하는 영어온라인 수업 방식의 이유

		이유	인원	퍼센트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 강의		반복적으로 시청가능해서 복습이 용이함	66	39.8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수강 할 수 있어 효율적임	42	25.3
		실시간 수업에서 생기는 음질, 화질문제나 인터넷 연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됨	4	2.4
		멈춤을 해서 필기할 수 있어 학습이 용이함	2	1.2
		교수님을 온라인 수업에서나마 볼 수 있어서 좋음	2	1.2
		다른 온라인 강의(실시간, 이미 제작된 강의) 보다 효과적임	3	1.8
		기타	3	1.8
		무응답	16	9.6
		소계	138	83.1
실시간 화상 강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함	1	0.6
		무응답	14	8.4
		소계	15	9.0
기존의 제작된 유명한 강사나 교수의 강의		내용, 화질, 음질에 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음	1	0.6
		무응답	11	6.6
		소계	12	7.2
합계			166	100

교수자가 녹화한 동영상강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반복적으로 시청가능해서 복습이 용이함”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강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응답의 결과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진 온라인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질문을 했으며 아래 표 4와 표 5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먼저 반복을 할 수 있어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각각 67명(40.4%) 학생이 “그렇다”로 답하였고 62명(37.3%)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 대다수 참여자인 129명(77.7%) 학생이 이에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어서 선호하는지에

대답은 각각 59명(35.5%)과 38(22.9%)명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대답해서 97명(58.4%)의 참여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에 비해 응답자들이 덜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을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위 표 3에서 보여주는 결과와도 일치 한다.

표 4. 반복을 할 수 있어 온라인수업을 선호함

반복의 효율성	인원	퍼센트
매우 아니다	3	1.8
아니다	5	3.0
모르겠다	29	17.5
그렇다	67	40.4
매우 그렇다	62	37.3
합계	166	100

표 5.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온라인수업 선호함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	인원	퍼센트
매우 아니다	9	5.4
아니다	15	9.0
모르겠다	45	27.1
그렇다	59	35.5
매우 그렇다	38	22.9
합계	166	100.0

COVID-사태로 인해 한 학기를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후에 선호하는 영어수업의 형태를 질문했고 그 결과는 다음 표 6에서 보여준다. 제일 다수를 차지한 것은 전통 방식의 대면 수업으로 63명(39.2%)이며 가장 많은 수 학생이 대면수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과 온라인강의(비대면) 강의를 혼합한 병행수업을 55명(33.1%)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43명(25.9%)으로 비교적 작은 수의 학생이 선택했다. 학생들은 2020년 1학기에 경험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후에도 전통 방식의 대면 강의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합친 형태의 병행수업을 선호했다. 오직 25%정도의 참여 학생만이 온라인 강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아직 많은 한계점과 보완점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참여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의 장점을 합한 병행수업을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업보다 많이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COVID-사태로 온라인수업 경험 후 선호하는 영어수업의 형태

선호하는 영어 수업 방식	인원	퍼센트
전통 방식의 대면 강의	65	39.2
비대면 온라인 강의	43	25.9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 병행 수업(blended learning)	55	33.1
기타	3	1.8
합계	166	100.0

표 7. 선호하는 영어 수업의 이유

	이유	인원	퍼센트
전통 방식의 대면 강의	온라인수업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12	7.2
	온라인수업은 동기나 교수님과 상호작용이 없어서	9	5.4
	온라인수업은 학습동기 떨어져서	7	4.2
	온라인수업은 질문하기 어렵고 응답도 느리므로	3	1.8
	온라인수업은 영어 말하기 연습이 어려움	3	1.8
	기타	2	1.2
	무응답	29	17.5
	소계	65	39.2
비대면 온라인 강의	COVID-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의 위험 때문에	27	16.3
	반복 학습 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시청 가능해서	12	7.2
	온라인 수업도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2	1.2
	과제, 발표도 가능하므로(zoom일 경우)	1	0.6
	무응답	28	16.9
	소계	43	25.9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 병행 수업 (blended learning)	동료, 교수님과 대면이 필요해서(혼자하기 어렵다)	11	6.6
	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어서	6	3.6
	온라인수업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워서	2	1.2
	무응답	36	21.7
	소계	55	33.1
기타	모름	3	1.8
합계		166	100

위 표 7와 같이 선호하는 영어수업에 대한 이유를 질문했고 학생들의 응답은 표 7과 같았다. 먼저 전통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전체 65명중 36명(21.7%)이 이유에 응답하였으며 무 응답한 학생들도 29명이나(17.5%) 되었다. 응답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면수업의 장점이 아닌 비대면수업의 단점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온라인 수업의 단점인 “집중력이 떨어져서”나 “상호작용이 없어서”와 “학습동기가 떨어져서”등이 있었다. 특히 외국어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인 “영어말하기 연습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아래와 같이 있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 27명(16.3%)의 학생은 “COVID-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해서”라고 답했으며, “반복이 가능하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서”라고 12명(7.2%)의 참가자들이 응답했다.

병행수업을 선호한다는 참여 학생들 중 11명(6.6%)은 혼자하기 어렵고 동료나 교수님과 대면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수업과 대면수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다음으로 많아서 6명(3.6%) 정도이며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이 36명(21.7%)로 사실상 가장 많았다. 병행수업은 대면수업을 원하는 학생들 다음으로 많았으며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가장 이상적인 대체수업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수업의 선호하는 평가방식과 그 이유를 표 8과 표 9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8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어온라인 평가방식을 보여주며 감독 없이 풀어서 제출하는 온라인시험을 56명(33.7%)이 선호했으며, 실시간 수업방식으로 감독을 받는 시험은 오직 12명(7.2%)의 참여 학생만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과제물로 대체하고 테스트가 없는 형태를 가장 많은 98명(59%)의 참여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박은경(2020)의 연구 결과에서 학생들의 선호하는 평가 방식이 비대면 온라인 영어시험 방식이 73.5% 나온 것과 대조적이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형태의 평가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왜 그렇게 원하는지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참여 학생들에게 이유를 조사했다.

표 8. 영어 온라인 수업의 평가방식

선호하는 온라인수업 평가 방식	인원	퍼센트
온라인 테스트(감독 없이 풀고 온라인 제출)	56	33.7
실시간 감독 받는(감독자가 있는) 테스트	12	7.2
과제물만 제출(테스트는 없음)	98	59
합계	166	100.0

위 표 8에서는 선호하는 평가에 대한 질문했으며 표 9에서는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테스트를 선호 하는 학생은 56명(33.7%)이었으며 그중 “보기 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21명(12.7%)으로 많았으며, 그 밖에 “이번 시험이 만족스러웠다”는 의견과 공정해서 그리고

“변별력이 잘 생겨서”라는 의견 등이 나왔으나 모두 1명에서 3명으로 소수의 의견이었으며 29명(17.5%)의 학생은 이유를 응답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감독을 받는 테스트는 12명(7.2%)의 학생들만 원했으며, 그 이유로는 공정해서라는 학생이 8명(4.8%)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동기가 부여”라는 대답은 2명이었고, 2명의 학생은 무응답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이 실시간 감독을 받는 테스트를 선택했다.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인 98명(59%)이 과제물 제출을 선택했으며 그중 “부정행위가 없어서”라는 이유를 39명(23.5%)이 선택했으며 가장 다수의 학생이 선택한 의견이었다. 그 다음은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6명,3.6%)라던가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과제를 통해 더 깊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2명의 학생들(2명,1.2%)이 답했다. 다수의 학생들은 온라인테스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 시험대신 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실시간 감독을 받는 시험은 공정하나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모순적인 결과가 보인다. 즉, 학생들은 비교적 공정하면서 부담감이 없는 과제를 평가 대신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선호하는 평가방식의 이유

		이유	인원	퍼센트
온라인 테스트		시험보기 편해서	21	12.7
		이번 영어시험이 만족스러워서	3	1.8
		공정해서	2	1.2
		변별력이 잘 생겨서	1	0.6
		무응답	29	17.5
		소계	56	33.7
실시간 감독 받는 (감독자가 있는) 테스트		공정해서(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	8	4.8
		학습 동기가 부여되어서	2	1.2
		무응답	2	1.2
		소계	12	7.2
과제물 제출 (테스트는 없음)		부정행위가 없어서	39	23.5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없어서	3	1.8
		과제를 통해 학습을 깊이 할 수 있어서	2	1.2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6	3.6
		무응답	47	28.3
		소계	98	59
합계			166	100

#### 4.2. 비대면 온라인 영어수업의 어려움 인식에 대한 논의

온라인수업에서 학습자가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을 조사했으며 학생들은 다중 응답을 선택하도록 했다. 학습동기부여와 학습전략 습득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60명(21.5%)의 학생이 선택했다. 원격수업에서 교수자가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수업으로는 학생들에게 직접대면해서 하는 설명 및 구축이 부재하여 대면수업에서와 같은 학습전략습득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로 57명(20.6%)의 학생이 평가의 어려움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56명(20.2%)의 학생이 과제의 과중함을 선택했다. 위 표 8와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온라인 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며 대면 수업에서 보다 늘어난 과제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49명(17.8%) 참여 학생들은 동료 학생부재로 인한 동기부여저하를 선택했다. 동료 학생들이 자아내는 학습 분위기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없어서 이 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학습상담 기회를 얻기 힘들어 역시 어렵다고 선택한 학생들도 각각 20명(7.2%)과 17(6.2%)명이 있었다. 이 두 요소는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대면수업에서는 즉시 질문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나 온라인수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으므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대부분 직접 대면이 없어 생긴 이러한 요인들로서 학생들 학습에 결손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학기 동안 일체 학습자와 교수자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의 과제가 될 것이다.

표 10. 학생들이 느끼는 온라인 영어수업의 어려운 점

온라인 수업의 어려운 점	인원	퍼센트
강의내용 이해어려움	20	7.2
그룹 활동 제약으로 수업 질 저하	10	3.6
평가(시험)의 어려움	57	20.6
과제 과중함	56	20.2
과제 미 부여에 따른 수업 질 저하	7	2.5
동료 학생 부재로 동기부여 저하	49	17.8
교수자로부터 얻는 학습 전략 습득의 어려움	60	21.5
학습 상담 기회 부족의 어려움	17	6.2
기타	1	0.4
합계	277	100.0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을 개방형 질문을 했으며 학생들의 질문을 정리해서 다음 표 11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대답한 학습자가 71명(42.8%)이었으며, 긍정적 의견을 답한 경우는 45명(27.1%)으로 부정적 의견이 26명(15.7%) 더 많았다. 긍정, 부정적 의견을 함께 제시한 학생들도 11명(6.6%)이었으며, 무 응답한 학생도 36명(21.7%) 꽤 많았으며 긍정, 부정도 아닌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도 3명(1.8%)이 있었다.

표 11. 2020년 1학기 학생들의 온라인영어수업 경험

의견 분류	인원	퍼센트
긍정적인 의견	45	27.1
부정적인 의견	71	42.8
긍정, 부정적 의견 함께 있는 경우	11	6.6
중립적 의견	3	1.8
무응답	36	21.7
합계	166	100

표 12.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의견 정리

의견	구체적 의견 내용
긍정적 의견	부분 재생할 수 있어 복습하기 편했다.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볼 수 있어 좋았다
	점차 익숙해져서 편해졌다.
부정적 의견	동기부여가 어렵다.
	교실부위기가 없어서 갈수록 집중이 어려웠다.
	집에서 들으니 편안해서 갈수록 의욕이 떨어졌다.
	신입생인데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 힘들었다.
	소리가 작고 음질, 화질 떨어졌다.
	수업마다 평가방법과 과제 제출방식이 모두 달라서 힘들다.
	갈수록 나태해지고 자발적인 시간관리가 어려웠다.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함께 있는 경우	처음에는 어색하고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할 수 있어 편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니 집중력이 떨어졌으나 반복해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용은 알차고 수업구성은 좋았으나 교수님과 학생과 상호 작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중립적 의견	신기했다. 어색했다.

긍정적인 의견은 이미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통해 학생들이 모두 언급을 했던 것으로 새로운 의견을 없었으나 부정적인 의견은 위의 표 12가 보여주듯이 다양했다. 부정적 의견은 온라인 수업자체에 관한 것도 있으며 “소리가 작고 음질이 나쁘다” 라던가 “과제가 너무 많다” 등은 이번 수업에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그리고 전 과목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마다 평가방법과 과제 제출방식이 모두 달라서 힘들었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즉, 장점에 비해 단점은 온라인 수업자체의 기술적 문제와 응답자들이 직접 참여한 영어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것 그리고 대학생활의 부재라는 상황까지 모두 포함해서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긍정, 부정의 의견이 섞인 의견도 있었고 “신기했다”와 “어색했다”처럼 중립적인 의견도 있었다. 즉, 학생들은 설문에 참여한 영어수업뿐 아니라 전 학기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표현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본인들의 나태함과 시간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했으며 온라인 수업은 수업자체 뿐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의 확산으로 대면수업이 거의 불가능했던 2020년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학 교양 영어수업을 마친 후,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83.1%)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은 선행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준다(이보경, 2020, 정성희, 2020, 민혜리 외, 2020). 실시간 온라인수업(9%)이나. 기존의 촬영된 수업(7%)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불안감을 연구한 박은경(2020)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온라인 녹화강의보다 실시간 화상강의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는 실시간 화상강의에 익숙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수업 환경에서 더 큰 불안함을 보인다고 했으며. 대부분 학습자는 비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 또는 대면강의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보다는 전통방식의 대면 수업을 가장 많이(39.2%)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선호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시험 없이 과제물만 제출하기 원하는 학생이 과반수 이상(59%)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부정행위가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으로는 교수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습 전략 습득의 어려움과 공정한 평가의 어려

움, 그리고 과제의 과중함, 동료의 부재로 인한 동기부여의 어려움 등을 선택하였다. 넷째, 온라인수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더 많았으며(71%) 온라인수업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고 다양했다. 긍정적 의견은 27.1%였으며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는 경우도 6.6%였다.

이번 COVID-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 응답한 학생들은 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교수자가 미리 온라인 수업을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한 것도 아니며 전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여 마련한 수업이었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들은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2020년도 1학기에 온라인 수업에 임해야 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보였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다수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면수업을 받는 가운데 소수 과목만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번 연구와는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몇 세션 병행하는 수업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Bueno-Alastuey & Lopez Perez, 2014; Jin, 2014)들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크게 만족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관한 Marjerison et al. (2020)의 연구는 신입생이 아닌 참여 학생의 경우 70% 정도가 이러한 형태의 수업에 만족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참여 학생들의 대학 생활 경험의 유무와, 전례 없이 거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온라인 또는 병행학습에서는“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Parsons, 2014). 즉, 교육적 중재의 효과는 항상 그것이 일어나는 교육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Parsons(2014)는 온라인수업은 그 내용 자체보다 전달되는 내용이 기술적인 것과 연관되어 더 근사하게 포장되는“팍스박사 효과(Dr. Fox effect)”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번 연구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선택적이고 실험적인 온라인 수업이 아닌, 모든 수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의 어려움으로 교수자의 학습전략을 얻기 어렵다거나, 온라인 수업에서 과제나 평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Paepe et al.(2018) 연구도 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동료들과 대화의 부재를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수업의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은 대면수업보다 교수자와 동료의 부재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므로 일대일 면담 활동이나 동료와의 그룹 활동을 더 활발히 장려해야 하며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에

또는 학생들끼리의 더 많은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온라인 영어 수업에서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교수학습 전략(예를 들면 교수-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내용 상호작용, 학습자-내적 상호작용 등)을 적용하여 수업에서 소그룹 활동이나 발표 수업등을 통해 학생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더 나아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체로 움직이는 교수법의 적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이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에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한 비중(27.1%)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학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한 사이즈의 신발에 모든 발이 맞을 수 없다(one shoe will not fit every foot)”는 격언이 의미하는 것처럼 학생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와 적응 정도는 무척 다르므로, 같은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개개인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정렬. (2000). 웹기반 자기 주도적 영어학습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7(1), 143-163.
- 민혜리, 서윤경, 윤희정, 이상훈, 김경이. (2020). *온라인 수업 강의 A2Z*. 서울: 학이시습.
- 박은경. (2020). COVID-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조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20-338.
- 박종필, 윤현철, 신민철, 김재현, 박정철. (2019). *교실의 미래 구글 클래스룸*. 부천: 프리텍.
- 신선애, 김옥분, 박지인, 김은진, 정태욱. (2020). 포스트 COVID-시대 대학 수업의 방향성 탐색: 중간강의 평가 데이터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195-228.
- 오재호. (2020). COVID-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 421, 1-25.
- 이보경. (2020).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4), 97-112.
- 이종연. (2004). 대학 이러닝 강좌의 학습 만족도 및 성취도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전달전략의 선택방안-학습자의 사전지식과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20(4), 185-214.

- 이현주. (2012).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대학생 영어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8(1), 1-24.
- 정동빈, 강시경. (2008).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초등 영어쓰기 교수-학습 효과. *언어연구*, 23(4), 577-599.
- 정성희. (2020). 학습자가 원하는 전공 영어 블렌디드 러닝 수업 유형 조사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1337-1363.
- 최미양. (2019). 대학 수업에서 스마트 LMS의 상호작용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3), 395-404.
- 하명정, 이유진. (2017).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 사례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2), 335-343.
- 하명정. (2020). 구글 미트와 연동한 구글 클래스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문화와 융합*, 42(10), 223-252.
- 한승우, 김보영. (2020). COVID-19 이후 대학 온라인 교육에 관한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문화와 융합*, 42(10), 155-172.
- 한지희, 임희정. (2011). 디지털 영어교재 기반의 블렌디드 러닝이 초등학생의 읽기성취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2(3), 384-405.
- 카우치 존, 타운 제이슨. (2020).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서울: 어크로스출판그룹.
- Allen, I. E., & Seaman, J. (2018). *Grade increase: Tracking distanc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Babson Survey Research Group.  
Report available at: <http://www.onlinelearningsurvey.com/highered.html>
- Bueno-Alastuey, M. C., & López Pérez, M. V. (2014). Evaluation of a blended learning language course: Students' perceptions of appropriateness for the development of skills and language area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7(6), 509-527.
- Chen, P. D., Lambert, A. D., & Guidry, K. R. (2010). Engaging online learners: The impact of webbased learning technology on college student engagement. *Computers & Education*, 54, 1222-1232.
- De Paepe, L., Zhu, C., & Depryck, K. (2018). Online Dutch L2 learning in adult education: Educators' and providers' viewpoints on need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pen Learning: The Journal of Open, Distance and e-Learning*, 33(1), 18-33.
- Jin, S.-H. (2014). Implementation of smartphone-based blended learning in an EFL

- undergraduate grammar cours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7(4), 11-37.
- Marjerison, R., Rahman, J., & Li, Z. (2020). Students' attitudes towards distance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ino-foreigncooperative universities and typical universities in China. *Journal of Instructional Pedagogics*, 25(3), 1-26.
- Parsons, D. (2014). The future of mobile learning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M. Ally & A. Tsinakos (Eds.), *Increasing access through mobile learning* (pp. 217-229). Commonwealth of Learning Press.
- Premsky, M. (2001). 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Richardson, J. W., Hollis, E., Pritchard, M., & Lingat, J. E. M. (2020). Shifting teaching and learning in online learning spaces: An investigation of a faculty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initiative. *Online Learning*, 24(1), 67-91.

**차현지**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이메일: hyunjicha@hanmail.net

**김성희**

우송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  
이메일: skim146@gmail.com

Received on January 22,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4, 2021

Accepted on March 30, 2021